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보도참고자료			
	보도	2017. 4. 21.(금) 조간	배포	2017. 4. 19(수)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진태국 국장(3145-7460), 설인배 국장(3145-5700),	양진태 팀장(3145-7471) 김성균 팀장(3145-5702)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④⑤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흔다섯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④⑤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백만원이 급하게 필요하여 보험계약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한달 무이자 등 광고 문구를 보고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한달내에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았음 ▪ (사례2)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자 자금마련을 위해 고민 끝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비에 큰 돈이 들어갔음. 이 사실을 안 친구는 B씨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으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안타까워했음 ▪ (사례3) 직장인 C씨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유중인 보험계약 3건 중 최근에 가입한 1건에 대해 보험계약대출금리를 확인한 후 3건 모두 대출을 받았으나 나머지 2건은 오래전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이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 후회하고 있음
	<p>☞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하게 활용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전 필요시 보험해지 대신 활용 ②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 ③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 ④ 은행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 ⑤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 </div>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대출은 ①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無방문**)하고, ②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無심사**), ③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無중도상환수수료**), ④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無신용등급조정**)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① 급전 필요시 보험해지 대신 활용

급히 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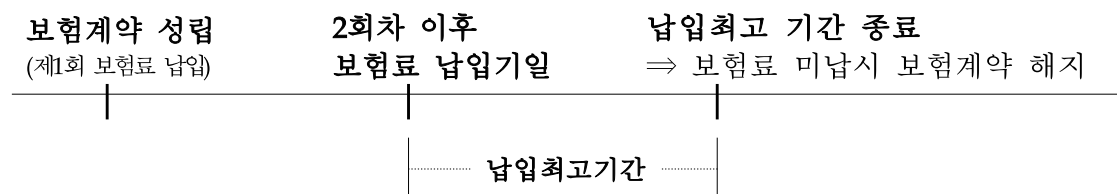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받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되어 **과거 질병 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납입최고기간 도해

- ▶ **납입최고기간** :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가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



- 납입최고기간은 14일 이상. 단, '10.5.31일까지 가입한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③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입니다.

<전체 계약과 최근 계약간 보험계약대출금리 비교(예시)>

(단위 : %, %p)

회사명	전체 계약*(A)		최근 계약**(B)		차 이(A-B)	
	금리확정	금리연동	금리확정	금리연동	금리확정	금리연동
○○생명	9.24	4.55	5.22	4.09	4.02	0.46
△△생명	8.15	4.66	5.75	4.13	2.40	0.53
◇◇생명	8.06	4.52	5.88	4.19	2.18	0.33
단순평균	8.48	4.58	5.62	4.14	2.87	0.44

* 전체 보험계약자가 '16.12월 중 신규로 체결한 보험계약대출 기준

** '15.4월 이후 출시된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16.12월 중 신규로 체결한 보험계약대출 기준

④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가장 쉽게 비교·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 「파인」은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만 치면 바로 접속 가능

< 금융권 대출 평균금리 비교 >

1. 은행권(지방은행 포함) 평균금리

(단위 : %)

신용등급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신용대출	3.63	4.48	5.90	8.64	10.52
마이너스대출	4.17	4.63	6.12	7.31	9.50

* 출처 : 파인(FINE) 금융상품한눈에('17.3.24일 현재)

2. 제2금융권(신용대출) 평균금리

(단위 : %)

신용등급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보험회사	6.29	7.70	9.53	10.98	-
여신전문회사	13.43	15.64	17.26	18.71	20.58
저축은행	19.97	22.57	23.66	24.86	25.84

* 출처 : 파인(FINE) 금융상품한눈에('17.3.24일 현재)

3. 보험회사별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

(단위 : %)

구분	생보사	손보사
금리확정형 (회사별 평균금리 최저 ~ 최고)	6.97 (4.08 ~ 9.23)	5.86 (5.03 ~ 7.18)
금리연동형 (회사별 평균금리 최저 ~ 최고)	4.40 (3.99 ~ 4.88)	4.28 (3.70 ~ 4.56)

* 출처 : 생·손보험회 홈페이지('17.3월 공시금리)

※ 상기 금리는 보험회사별 평균 금리로서 실제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가입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⑤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여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되면 e-mail, SMS, 일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자미납시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증가(예시) >

대출금리 5%에 보험계약대출 500만원을 빌린 후 4년간 이자(107.75만원)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 5차년도 연간 이자는 30.39만원*으로 1차년도 연간 이자 25만원보다 20% 이상 증가하게 되며 실제 부담이자율(6.08%)은 대출금리(5.00%)보다 1.08%p 상승하게 됩니다.

* (500만원+107.75만원) × 5%

※ 실제 보험계약대출은 매월(일할 계산방식) 부과되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연간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

경과기간별 보험계약대출 이자

(단위 : 만원, %)

대출이후 경과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보험계약대출	500	500	500	500	500
연간 이자*	25	26.25	27.56	28.94	30.39
미납 이자(누적)	25	51.25	78.81	107.75	138.14
실제 부담이자율**	5.00	5.25	5.51	5.79	6.08

* 연간 이자 = (보험계약대출+미납이자)×대출금리

** 실제 부담이자율 = 연간 이자/보험계약대출

1. 개념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등에 따라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주요 고객

보험계약의 **보장**은 유지되면서 번거로운 **심사절차**, **수수료 부담** 및 **신용등급하락 없이** 이용가능하나 보험계약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다소 **높을** 수 있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대상 계약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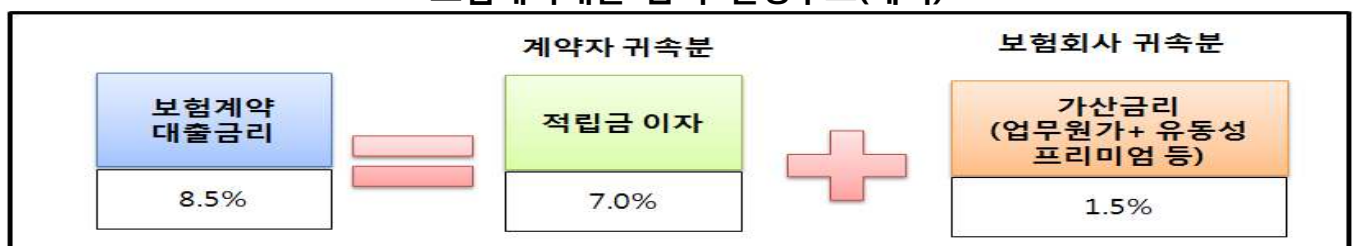
4. 이용 기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수시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이자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은 **불가능**합니다.

5. 금리산출 체계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개별 보험계약의 **적립금(책임준비금)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구조이며 **적립금 이율** 부분은 절대적인 **금리수준**이 높더라도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입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결정구조(예시)>



또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적립금 이율이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확정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되며 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하락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6. 이용 현황

'16.12월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3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4.5%)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이용건수는 연간 3백만건 수준입니다.

(단위 : 조원, 천건)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잔액 기준	대출 잔액	49.8	51.6	52.9	55.3
	이용 건수	15,216	15,340	15,272	15,546
신규 기준	신규 대출	3.3	4.2	3.6	3.4
	이용 건수	2,765	2,994	2,917	3,060

7. 신청 방법

보험계약자는 창구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신청방법>

방 식	절 차
① 창구 방문	고객센터 등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작성(대리신청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필요)
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 인증 등) 절차 진행 후 대출신청
③ 전화(ARS)	콜센터 상담사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ARS 비밀번호 확인 등) 후 대출신청
④ 모바일	스마트 폰에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대출신청(인터넷 금융거래인증 후 신청 가능)
⑤ ATM(CD기)	보험회사 카드 발급 후 보험회사 ATM, 제휴 은행 CD/ATM를 통해 대출신청